수필이 있는 풍경사진

권영주
푸른소아과.내과의원장
순천향의대 명예교수

#1 라오스 불탑

동남아의 종교는 불교이며 우리나라와 달리 소승 불교 편에 속한다. 대승이다 소승이다 불교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보다 대승 속에 소승이 있고 소승 속에 대승이 녹아 있다.
불교가 순수하게 남아 있는 그 증거로서 이른 아침 탁발 공양이 있다. 스님들에게 아침을 공양하기 위하여 마련해 온 따끈한 아침밥을 줄을 서서 맨발로 걸어오시는 스님들께 공손히 공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진정 이것이 인간의 원천적인 보시이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 아니겠는가? 주는 사람은 생명을 겸손하게 보시 하고, 받는 사람은 겸허히 받아 감사의 표시가 서로 깊게 흐른다. 일상 사회생활 자체가 이와 같은 정신 속에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수도 비앙티엔 한 가운데 거대한 석가모니 불탑에 합장하고 한번 돌아보니 만사가 불법의 진리 속에 있음이 느껴진다. 이 나라 온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불법의 진리가 아니던가! 진리는 살아 있으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과거, 현재, 미래와 함께 있다.

mp저널27호 내지.indd 70 2018-09-28 오전 10:33:52

mp저널27호 내지.indd 71 2018-09-28 오전 10:33:53

mp저널27호 내지.indd 72 2018-09-28 오전 10:33:53

#2 은 목걸이 폭포

물은 만물의 근원이며 만물의 어머니와 같다. 그 성질은 유순하기 그지없으며 모든 것을 받아 들이고 모든 것을 내어준다. 자연의 어머니와 같고 생명체 내에서는 언제나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다. 그러나 폭풍 노도와 같은 성난 물결, 또는 가뭄 속으로 타들어가는 사막과 같은 현상들은 본질적인 물의 성질은 아니다. 세상은 중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현상에는 과도기 같은 때가 있으며 점차 중도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흐르는 물은 천길 낭떨어지서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시냇물 소리와 같이 정답게 들리기도 한다.

중국 남쪽지역인 귀주 구이양에는 항과수라는 아름답고 거대한 폭포가 있다. 가는 도중에는 그 모양이 기이하고 흐르는 물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합쳐져서 은 목걸이 모양에 은방울 소리가 들린다고 하여 은 목걸이 폭포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재미있는 표현이다.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다보니 일행이 보이지 않는다. 황급히 서둘러 오니 모두들 기다리고 있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좋은 풍경 사진은 노력 없이는 생기지 않는다.

mp저널27호 내지.indd 73 2018-09-28 오전 10:33:54